

저축성 보험 보유 및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Cash-Value Life Insurance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연구조교수 백 은 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부교수 정 순 희**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 Baek, Eun-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of cash-value life insurance of households. Based on human capital and bequest motive theori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this study developed a conceptual model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of households. In addition, in order to capture the beneficiaries' preference and expected lifetime utility, expected future financial needs were included in the conceptual model. Using Heckit analysis, the model was estimated by two stages. The results supported that human capital, bequest motives and expected future financial needs were significant factors on both decision to have insurance and the amount of insurance. Specifically, if the household's head expected to have a higher potential in the future, the household was more likely to have insurance. If a household had dependents, the household was more likely to have insurance. As income or monthly expenditur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having insurance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increased. However, savings or social insura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urchase of insurance.

▲주요어(Key Words) : 인적자본(human capital), 상속동기(bequest motives), 미래 지출 요구수준(future financial needs), 저축성 보험(cash-value life insurance)

1. 서 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가계의 경제 행동에 지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 고령 사회로의 신속한 진입, 그리고 각종 불확실성의 증대가 대표적인 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와 다양해진 금융상품,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

의 연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등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개별 가계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인 재정설계를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가계의 재정관리는 소비, 보호, 자산 증식의 세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김순미·양정선, 2004). 소비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해지는 경제행동으로서 소비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는 재정설계의 1차적 목표가 된다. 위험관리는 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비 다음으로 중요한 재정설계의 과제이다. 즉, 개인 소비자 및 가계는 일생 동안 각종 상해 및 질병, 사망뿐 아니라 투자실패, 실직, 화재, 폭발, 침

* 주 저 자 : 백 은 영 (Email : eunibaek@korea.com)

** 교신저자 : 정 순 희 (Email : jsh@ewha.ac.kr)

수 등 각종 위험 및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재정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가계를 둘러싼 여러 위험들은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정순희, 2003). 보험은 앞서 언급한 재정관리의 기본적인 3가지 목표 중 보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따라서 가계 재정설계시 위험관리를 위해 보험설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험은 대표적인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보험 가입 행동은 가계가 주어진 예산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경제주체라고 가정할 때, 불확실성 하에서 주어진 예산 제약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Yari, 1986). 보험은 사망, 생존, 질병, 상해, 장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김순미·양정선, 2004) 크게 순수보장형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장 및 저축의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관리 및 자산축적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통적 형태의 저축성 보험은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강제성 저축의 의미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실제 금리에 따라 금리가 연동하거나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재정설계에 있어서 보호 및 자산축적의 두가지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설계시에는 일반적으로 위험 대비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을 들고 그 차액을 저축 및 투자를 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Garman & Fogue,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을 저축의 대안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강해 보험 본래의 순수보장성 보다는 저축의 성격이 결합된 노후대비나 자녀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김경자, 2003). 또한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은 오랫동안 보험의 역할보다는 수입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단기저축성 상품 판매에 치중하여 저축 산업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안승철, 정영숙, & 배미경, 2002) 저축성 보험이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행동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시기에 국민들의 저축을 강조해 왔고 가계 측면에서는 저축의에는 투자 방법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제 저축의 일환으로 저축성 보험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 가입률

은 2003년 기준으로 8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이 국민의 가계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생명보험협회, 2004). 생명보험은 대부분 가계에 있어서 장기적 재정설계의 필수적 요소이며, 그 중요성만큼 가계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큰 편이다(DeVaney & Keaton, 1994). 이와 같이 가계 재정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재정설계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보험에 대해 가계가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보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험 수요자인 소비자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보험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보험의 공급자인 보험사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 수요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진 몇몇 연구들은 이론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분석된 경우보다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가 많았다. 또한 과거에 모집인을 중심으로 권유에 의한 가입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각종 불확실성 및 위험의 증가, 그리고 보험 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험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수요자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보험이 재정설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동안 수요자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계의 보험행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성 보험이 가계의 보험행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에 초점을 두어 보험 보유실태 및 보험 보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들이 탐색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어떠한 가계들이 보험에 가입하며 어떠한 이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 보험 관련 실무 종사자 뿐 아니라 재무설계사, 소비자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정교화된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탐색적 성격으로 수행되어 왔던 수요자측 보험 연구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문헌 고찰

1. 위험 설계의 중요성

위험이란 손실을 입을 가능성, 불확실성, 또는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관리란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측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위험관리에서 다루는 위험은 순수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위험이다(Vaughan, 1997).

가계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가장의 예기치 못한 사망,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릴 위험,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한 불확실성 등(Merton, 1975)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불확실성 또는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정순희, 2003). 따라서 가계의 위험관리가 재정설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관리하게 되는 가계 위험은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재무적 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본의 상실위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기치 못한 주 소득원의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 둘째, 자산가치 상실이나 하락과 관련된 위험, 셋째, 타인의 인적자본이나 자산가치에 손실을 입힐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양민애, 1994). 두 번째와 세 번째 위험의 경우 대표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보험으로 순수보장형 보험이라면 첫 번째 위험에 대비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형태로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으며 보장형의 경우라도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여 위험관리와 함께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설계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첫 번째 위험의 경우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미래 기대소득의 완전상실 또는 치명적인 상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위험관리를 위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위험에 비해 보다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2. 이론적 배경

보험에 관한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보험 선택 행동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Yarri, 1965). 이론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계의 보험선택은 가입자의 인적 자본과 수익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상속 동기에 의한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인적자본에 초점을 두어 이론을 전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Campbell(1980)은 보험에 대한 수요는 위험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인적 자본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경우 앞으로 닥칠 위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되므로 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수익자의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한 연구들을 보면, Lewis(1989)의 경우, 보험에 대한 수요는 가입자의 동기나 인적 자본보다는 수익자의 기대효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보게 될 가족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재정적 도움이 요구되는지를 고려하여 보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익자 측면에서 보험의 수요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은 상속 동기이다. 본인에

게 위험이 닥쳤을 때, 특히 전형적인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 사망 후의 남은 가족원을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Bernheim, 1991; Campbell, 1980). 따라서 상속 동기가 클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았고 상속 동기는 가족원의 수나 미래의 재정적 요구, 그리고 그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개인의 이타주의와 같은 순수 상속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arman과 Forgue(2000)는 가계의 재정설계 차원에서 보험설계시 고려해야 할 점을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보험에 대한 필요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미혼일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면서 가족원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한다. 특히 자녀의 출생은 더욱 보험에 대한 필요를 증폭시키는데, 그러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노년기 또는 노년에 다시 한번 독신기를 맞이하면서 보험에 대한 필요는 감소하게 된다. 둘째, 보험 보유의 적절성은 위험이 닥친 이후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주 소득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소득만큼을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밖에도 가계에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 요구나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위험이 닥친 이후의 소비, 지출에 대한 재정적 요구는 더 클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 연금 등 사회 보장제도에 의한 연금 및 보험이 있다면 위험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다면 보험에 대한 요구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나이와 건강이 보험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이는 보험설계에 있어서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사망확률이나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한다. 건강의 경우 술, 담배를 하는 경우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험 가입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보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가입자 또는 주 소득원이 되는 가구주의 인적자본이나 혜택을 보게 되는 수익자들의 재정적 요구 수준을 배려하는 상속 동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재정설계 차원에서 보험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 그들의 향후 재정적 요구 수준, 미래 재정적 요구를 감당할만한 현재의 저축 및 자산 상태, 나이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보험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상속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유무나 수, 동기적 차원 뿐 아니라 실제 부양가족들의 미래 재정적 요구정도, 그리고 가입자 자신의 인적자본, 즉 현재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인적자본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소득의 기대치를 포함한 인적 자본 등이 가계 보험 설계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선행 연구 고찰

보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험 공급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손익 배분 분석(김정동, 2004)이나 보험사의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운용 방안(김종국과 도춘만, 2000)이라든지 보험사의 사업 다각화(이원돈, 2003)등 주로 보험사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가계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 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편이었고 특히 재정설계의 일부인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외국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가계 및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 연구들을 고찰한 뒤, 관련 변수에 대해 요약하고자 한다.

가계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Burnett과 Palmer(1984), Showers과 Shotick(199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가계 특성에 초점을 두어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보험 보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Showers과 Shotick(1994)의 경우는 가계 특성으로 소득, 나이, 가족수, 취업인원수 등을 파악하였고 나이를 생활주기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하였는데, 즉, 위험에 당면할 경우 현재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에 상실(loss)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므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불입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인원수가 많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지출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urnett과 Palmer(1984)는 가계의 일반적 특성에 심리적 동기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결과에 의하면 자녀수가 증가 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운명론자가 아닐 경우 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심리적 요인 중 보험과 가장 연관이 있는 위험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위험선호형의 경우가 회피형의 경우보다 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oldsmith(1983)의 경우는 인적자본에 초점을 두어 가계 보험 행동에 대한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다. Goldsmith는 배우자(이 연구에서는 아내)의 인적자본이 상대 배우자(남편)의 보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였는데, 아내의 인적자본이 클수록 남편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이 사망하거나 혹은 위험이 닥쳐 가족원을 부양하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아내의 인적 자본을 통해 어느 정도 가족을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인적 자본 외에도 가계의 재정적 자원이 보험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Gandolfi와 Miners(1996)는 성별에 따른 보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의 보험 수요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은 남녀 모두의 보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데, 즉,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남편의 경우 본인의 교육수준은 보험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교육수준은 본인의 보험수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경우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을 덜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보험 보유도 높았다.

Browne과 Kim(1993)은 보험 수요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6개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과 자녀수는 보험 수요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또한 Lewis(1989)가 제시한 바대로 사회 보험의 경우는 보험 수요와는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거시적 지표로서 인플레이션은 보험 수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분석된 연구도 있었지만 몇몇 가계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탐색적인 형태의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이나 상속동기 등 특정 이론에 근거한 연구의 경우에는 특정이론의 검증에 초점을 두었고 기타 가계의 재정설계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다른 요인들은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험적 연구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각도에서 보험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선행연구에 기초한 보다 정교화 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론에 근거하되 실제로 가계가 보험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 선행연구에 비해 소비자 및 가계 관점에서 분석된 국내 보험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었다. 또한 수요자측 관점에서 분석된 보험 연구는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류건식과 이경희(2001)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구매성향 분석에서 연령과 소득이 각각의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복합금융상품 중에서 위험보장에 정기예금의 형태를 겸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일수록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40-50대 중장년 계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금상품 가입 후 예금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을 당한 경우 예금 잔액의 1-3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복합금융형상품에 대해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김순미와 양정선(2004)은 저축성 보험을 저축수단의 하나로 분석하였다. 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계는 전체 가계 중 76.57%로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76.18%)를 근소한 차이로 상회하고 있었고 월평균 16만6천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보험액이 총 보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계 보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함께 분석된 저

축이나 계에 비해 소득계층별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보유수준이나 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저축성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저축성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보험 불입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40대와 비교했을 때 보험 불입액이 큰 반면, 30대의 경우는 40대에 비해 보험 불입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외국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집단이나 대학,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모두 고졸에 비해 보험 불입액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사무직중에 종사하는 경우보다는 임시 및 일용노동직에 종사할 경우 보험 불입액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그동안 외국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는 보험과 인적 자본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결과이다. 또한 보험 불입액은 월평균 소득 및 자녀수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배우자 취업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한 경우, 보험 불입액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출 분석에 있어서 재무위험 인지 요인을 가계특성과 함께 분석한 김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4.6%가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제외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높은 가입율을 나타내었다. 월평균 보험료 지출은 23만 6천원으로 전체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순미와 양정선(2004) 연구의 소득 9분위 정도에 해당하는 지출수준을 보였다. 보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여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위험 인지 요인 중에는 신용관련 위험만이 보험료 지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관련 위험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가계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국내에서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접근한 보험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으므로 김경자(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정교화된 연구 모델을 통한 보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적 자본 이론이나 상속 동기에 의한 보험 수요 이론 등이 국내 연구 결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외국에서 발전된 이론적 배경이 국내 실정에도 적용할 만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인적 자본 요인, 상속 동기 요인, 미래에 대한 지출 요구 수준 요인으로 나누고 이 밖에도 보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가계 특성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모델을 구성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1년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비실태 조사는 1991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 소비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전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소득 및 지출 자료는 2000년 한해 동안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저축 및 부채, 내구재 보유현황 등은 2000년 12월말 현재 보유 수준으로, 저장의 개념으로 수집되었다. 전국의 표본조사구 내에 있는 약 27,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이면서 20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총 23,593개 가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의 선정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저축성 보험이다.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료에서는 목돈마련이나 은퇴 후 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급부금이 더 많은 경우를 저축성 보험으로 정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축성 보험 변수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급부금이 더 많은 모든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보고 2000년 말 조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총액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인적 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변수로서 교육수준과(Bryant, 1980) 경험의 대리변수 또는 향후 인적 자본에 대한 가능성(potential)으로서의 연령을 포함하였다(Bryant, 1980; Campbell, 1980). 연령은 보험행동을 예측할 때 주요한 변수중의 하나인데 Campbell(1980)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향후 가능성은 감소하므로 인적자본은 감소한다고 보았다. 또한 Garman과 Fogue(2000)는 연령에 따라 건강이 나빠질 확률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교육수준과 더불어 대표적인 인적 자본의 하나인 건강 변수와 관련해서도 연령을 인적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득 획득의 가능성에 대한 능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고용 상태를 인적자본의 하나로 간주하였다(Goldsmith, 1983). 상속 동기 요인으로는 상속 동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양가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 상태 및 자녀수를 포함하였다.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 변수로는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포함하고, 그 요구 수준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대리 변수로 취업인수와 자산관련 변수, 사회보장 관련 변수 등을 포함하였다. 소득이 미래 지출 요구수준의 대리변수 및 기대되는 소득 상실분을 나타내 주는 변수라면 월평균 지출 수준은 미래 예상되는 재정적 요구수준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한 변수

로서(Bernheim, 1994) 보험 연구에서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두 변수의 높은 상관관계를 우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관관계 및 VI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두 변수 모두 포함하였다¹⁾. 또한 주택보유 유무와 성별을

기타 가구 특성으로 포함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 측정 방법

변수	1단계: Probit 분석	2단계: OLS
종속변수	저축성 보험 보유 유=1; 무=0	저축성 보험 보유액 (자연로그 값)
독립변수		
연령	20대 해당=1; 비해당=0 30대 해당=1; 비해당=0 40대 해당=1; 비해당=0 50대 해당=1; 비해당=0 60대 해당=1; 비해당=0 70대 해당=1; 비해당=0	1단계와 동일
교육수준	고졸 미만 해당=1; 비해당=0 고졸 해당=1; 비해당=0 초대졸 이상 해당=1; 비해당=0	1단계와 동일
고용상태	봉급생활자 해당=1; 비해당=0 자영업자 해당=1; 비해당=0 무직 해당=1; 비해당=0	1단계와 동일
결혼상태	기혼=1; 기타=0	1단계와 동일
취학자녀수	연속변수	1단계와 동일
소득(만원)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축어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 하위 25%(1분위) 해당=1; 비해당=0 25%-50%(2분위) 해당=1; 비해당=0 50%-75%(3분위) 해당=1; 비해당=0 상위 25% (4분위) 해당=1; 비해당=0	연간총소득의 자연로그값
취업인수	연속변수	1단계와 동일
저축(만원)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보유액 합계 저축 유=1; 무=0	총 보유액의 자연로그값
부채(만원)	부채 보유액 합계 부채 유=1; 무=0	총 보유액의 자연로그값
연금(만원)	연간 연금기여금 합계 유=1; 무=0	1단계와 동일
사회보험(만원)	연간 사회보험 합계유=1; 무=0	1단계와 동일
월평균소비지출(만원)		비 소비지출을 제외한 월평균 소비지출 합계/12
주택보유	자가=1; 기타=0	1단계와 동일
성별	남=1; 여=0	1단계와 동일

1) 소득과 월평균 지출변수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서 종종 한 모델에서 두 변수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지출 변수가 소득과는 별개로 중요한 변수이므로 가능한 두 변수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0.47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대개 0.8이상) 높은 수치가 아니며 VIF 검증을 해 본 결과 포함된 변수 중 어느 것도 다중공선성 문제가 우려되는 10 이상의 수치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두 변수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보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월평균 보험료나 보험보유액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수 가계가 보험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Tobit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많이 적용되어왔던 Tobit 분석의 경우 모든 0의 값에 대해 참값에 관계없이 양수일 확률을 가정하며, 동일한 독립변수가 보험보유액 및 보험보유결정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보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2단계 추정방식이 적합한데, 보유액만 분석할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되며 이때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될 경우 표집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보유 유무와 보험액을 2단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보험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서(Wooldridge, 2000) 변수의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 보유결과와 보험 보유액에 대한 결정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 걸쳐 추정하는 분석 중 Heckit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Heckit에 의한 2단계 추정방식은 Cragg(1971)이 제시한 전형적인 더블헤더 모델이 가지고 있는 두 단계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식이다(Breen, 1996). 특히, 본 분석과 같이 두 단계의 결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Cragg의 모델보다 더 적절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보험보유 유무에 대하여 Probi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단계 분석에서 얻어진 Mills ratio를 포함해, 2단계에서는 보험보유액에 대한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하기에 앞서 빈도 및 백분율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또한 가계 특성별 저축성 보험보유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 대상 가구인 23,593 가계 중 저축성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10,689로서 전체 가구의 45%에 해당하였다. 이는 같은 해(2000년) 생명보험성향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보험 가입률(81.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순수 보장형 보험을 제외한 저축의 형태가 부가된 보험에 대한 가입율과 비교하면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 연령층은 30-40대가 각각 24%, 30%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 1/3 이상이

고졸에 해당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반 이상은 봉급생활자에 해당하였고 현재 무직인 경우도 20% 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77%로 여성보다 많았고 75%는 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54% 정도로 나타났다. 가계당 평균 취업 인원은 한명 정도였으며 월평균 지출수준은 142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에 1년 동안 지출한 총 금액은 평균 54만원 정도였고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지출한 액수는 연평균 4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은 연평균 2,646만원 수준이었으며 저축 및 부채 보유액은 각각 1,850만원, 840만원이었다. 저축성 보험은 평균적으로 총 282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가계 특성별 저축성 보험 보유 현황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성별, 결혼상태 및 자산-부채 등 가계의 주요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저축성 보험보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축성 보험 보유는 가계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30대, 50대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에 해당하는 경우 48%로 높은 저축성 보험 보유율을 보였으며 자영업 종사자나 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는 봉급생활자가 더 높은 보유율을 보였다. 남성이거나 기혼인 경우 저축성 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보다 저축성 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소득 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저축성 보험 보유율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95%가 저축성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부채가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보유율을 보여주었다.

3. 저축성 보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계의 저축성 보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친 추정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저축성 보험 보유 여부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적 자본 요인 중에서는 연령 및 고용상태가, 상속동기에 해당하는 결혼 상태 및 취학자녀수, 그리고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주택보유 상태도 보험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본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각 연령층이 보험보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3,593)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저축성보험 보유 유무	보유	10,689	45.31
	비보유	12,904	54.69
연령	20대	1,841	7.80
	30대	5,698	24.15
	40대	7,055	29.90
	50대	4,356	18.46
	60대	2,979	12.63
	70대	1,664	7.05
교육수준	고졸 미만	5,530	23.44
	고졸	8,997	38.13
	초대졸 이상	5,361	22.72
고용상태	봉급생활자	12833	54.39
	자영업 종사자	6024	25.54
	무직	4736	20.07
성별	남	18142	76.90
	여	5451	23.10
결혼상태	기혼	17,745	75.21
	기타	5,848	24.79
취학자녀수	없음	3,658	15.50
	1명	10,974	46.51
	2명	7,419	31.45
	3명이상	1,542	6.54
주택소유유무	주택 보유자	12,730	53.96
	무주택자	10,863	46.04
연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취업인원수		1.30	0.84
월평균 지출		142.00	85.95
연간 연금 기여금 불입액		53.93	71.85
연간 사회 보험 불입액		43.62	41.31
저축성 보험 (총 보유액)		280.93	843.54
저축 (총 보유액)		1,849.50	4,181
부채 (총 보유액)		839.92	2,065
연간 총 소득		2,646.54	3,066

<표 3> 가계 특성별 저축성 보험 보유 현황

가계 특성		보유현황(%)	카이제곱
연령	20대	5.77	1697.20 ***
	30대	29.54	
	40대	35.59	
	50대	19.03	
	60대	8.75	
	70대	1.32	
교육수준	고졸 미만	22.67	254.07 ***
	고졸	47.69	
	초대졸 이상	29.64	
고용상태	봉급생활자	60.38	1320.86 ***
	자영업 종사자	29.91	
	무직	9.71	
성별	남	83.56	488.93 ***
	여	16.44	
결혼상태	기혼	85.65	1141.65 ***
	기타	14.35	
주택소유유무	주택 보유자	57.84	118.90 ***
	무주택자	42.16	
소득 수준	25% 미만	11.39	2369.24 ***
	25 - 50%	23.85	
	50 - 75%	30.85	
	75% 이상	33.90	
저축 유무	저축 보유	94.79	460.08 ***
	저축 비보유	5.21	
부채 유무	부채 보유	54.65	487.68 ***
	부채 비보유	45.35	

는데, 20대에 비해 30, 40대의 경우는 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던 반면, 60, 70대는 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에 비해 30, 40대의 경우, 교육 외에도 경력 축적을 통한 인적 자본의 증가에 따라 보험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20대 시기보다도 더 축적된 인적 자본의 가능성(potential)이 아직 높게 남아 있는 시기이므로 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60, 70대의 경우는 20대에 비해 훨씬 많은 경력 축적은 이뤄졌을지 모르나 대개는 은퇴 시기에 해당하며 또한 앞으로도 축적된 인적 자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시기로서 보험을 보유할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령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건강, 경력 및 소득 획득 가능성의 대리변수로서 인적 자본 이론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고용상태를 보면 봉급생활자든 자영업자든 현재 소득 획득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무직인 경우에 비해 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현재 직업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무직인 경우에 비하여 미래 위험에 의한 인적 자본의 상실감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상속동기 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 보유율은 높아 기존의 보험에 대한 상속동기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나 자녀 유무 등은 부양가족 수와도 연관되어 미래 지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보험을 상속 동기 이론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두 변수는 심리적 동기 자체와 더불어 상속 동기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즉,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여 본인 이외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양해야 할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래 위험에 대해 대비를 해 두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기 때문이다.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변수들도 보험 보유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해 2분위, 3분위, 4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이 보험을 보유할 확률은 더 높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위험에 대한 상실 부분이 더 클 것이 예상되므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보험을 통해 위험 관

리를 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저축성 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저축 보유는 보험 대신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서로 대체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가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가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일반 보험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저축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생각된다. 즉, 저축을 하는 가계의 경우는 유사한 형태인 저축성 보험을 위험관리의 수단 뿐 아니라 저축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이나 사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저축 보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보험보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경우 보험을 보유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고 이

는 부채가 있는 가계일수록 보험에 대한 필요는 더 커진다는 Garman과 Forgue(2000)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보험을 보유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일수록 보험을 보유할 확률은 더 높았다.

<표 5>에서는 저축성 보험 보유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전 단계의 보험 보유 유무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게 인적 자본 요인 중에서는 연령과 고용상태가 저축성 보험 보유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에 비해 30, 40, 50, 60대 모두 더 많은 보험 보유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 단계에서 20대에 비해 30, 40대는 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으나 60, 70대의 경우 보험 보유 확률은 낮아지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같은 변수라고 하더라도 2단계에 걸쳐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표 4> 저축성 보험에 대한 Heckit Model 분석: 1단계 Probit 분석

변수		Estimate	Standard Error
인적자본			
연령(20대)	30대	0.237 ***	0.037
	40대	0.102 *	0.040
	50대	-0.053	0.041
	60대	-0.131 **	0.045
	70대	-0.681 ***	0.061
교육수준 (고졸)	고졸 미만	0.001	0.023
	초대졸 이상	-0.041	0.023
고용상태 (무직)	봉급생활자	0.129 ***	0.032
	자영업자	0.201 ***	0.035
상속동기			
결혼상태(기타)		0.259 ***	0.027
취학자녀수		0.030 *	0.012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			
소득 수준(1분위)	2분위	0.261 ***	0.028
	3분위	0.441 ***	0.031
	4분위	0.530 ***	0.034
취업인 수		0.022	0.014
저축 유무(무)		0.465 ***	0.032
부채 유무(무)		0.120 ***	0.018
연금 보유(무)		0.209 ***	0.022
사회보험 보유(무)		0.144 ***	0.032
기타 가구특성			
주택보유(무)		0.097 ***	0.020
성별(여)		-0.103 ***	0.026
상수		-1.542 ***	0.053
Log-Likelihood		-14250.70	

주: ()안은 준거집단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경우 20대나 아직 미혼인 시기에는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30-40대로 갈수록 인적 자본의 증가 및 가족원의 증가와 함께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증가하다가 다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은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보험료의 경우는 낮은 연령층인 경우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해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보유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20대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보유액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보험료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불입액의 축적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고용 상태에 따라서는 무직인 경우에 비해 자영업자인 경우 보험 보유액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봉급 생활자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의 위험이 더 크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1단계 분석에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 종사자 모두 무직에 비해 보험을 보유할 확률은 높았지만 액수 면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용 위험이 더 큰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무직에 비해 보험 보유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상속동기 요인 중에는 결혼 상태만이 보험 보유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하여 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 보유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수는 보험보유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자녀수가 1인이거나 많은 경우 2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녀수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보유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표 5> 저축성 보험에 대한 Heckit Model 분석: 2단계 Regression 분석

변수		Estimate	Standard Error
인 적 자 본			
연령(20대)	30대	0.408 ***	0.058
	40대	0.474 ***	0.058
	50대	0.401 ***	0.060
	60대	0.346 ***	0.068
	70대	0.033	0.136
교육수준 (고졸)	고졸 미만	-0.030	0.032
	초대졸 이상	0.011	0.030
고용상태 (무직)	봉급생활자	0.025	0.050
	자영업자	0.157 **	0.055
상 속 동 기			
결혼상태(기타)		0.190 ***	0.049
취학자녀수		0.026	0.016
미 래 지 출 에 대 한 요 구 수 준			
소득 수준		0.299 ***	0.030
취업인 수		-0.035	0.019
월평균 소비지출		0.001 ***	0.000
저축 수준		0.065 ***	0.007
부채 수준		-0.002	0.004
연금 보유(무)		0.071	0.037
사회보험 보유(무)		0.004	0.055
기 타 가 구 특 성			
주택보유(무)		0.137 ***	0.027
성별(여)		-0.014	0.039
Lambda		0.224	0.150
상수		1.895 ***	0.399
F-Value		63.81 ***	
Adj R ²		0.11	

주: ()안은 준거집단

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존재 자체가 상속동기에 영향을 주어 보험 가입 동기는 증가시키나 그 수를 고려하여 액수를 증가 시키지 않는 것은 자녀수 또는 자녀 유무가 미래 지출 요구 수준 보다는 상속동기를 나타내 주는 변수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 요인 중에는 소득, 월평균 소비 지출, 저축수준이 보험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위험에 대한 소득 상실분이나 앞으로 대비해야 할 가계의 재정적 요구수준이 높으므로 이들 변수는 보험 보유액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보유액이 높을수록 보험 보유액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 단계에서 저축 보유와 보험보유 여부와의 관계와 유사한 이유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가계 특성 중에서는 주택 보유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일수록 보험 보유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험 및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가계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서 가계 재정설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는 시점에서 가계의 보험 보유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인적 자본 및 상속동기 이론이 보험 보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재정설계적 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요구수준 또한 가계 보험 보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적자본, 상속동기,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저축성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의 45%에 해당하였고 저축성 보험 보유액을 분석함에 있어서 선택편의 조정 및 보유 결정, 보유액 결정에 대한 변수의 서로 다른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도록 2단계 추정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적 자본 및 상속 동기,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 요인 모두 가계가 저축성 보험을 보유할 확률이나 보유액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요인들은 보험을 보유할 확률을 예측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같은 변수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도 보험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연령 변수의 경우 가계의 보험행동을 설명할 때 2단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서(Wooldridge, 2000),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험 보유와 보험 보유액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서 2단계 추정 방법의 적합성을 지지해 주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젊었을 때는 인적 자본으로 얻어지는 향후 미래 기대소득 및 인적 자본 활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을 많이 들게 되나,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앞으로 인적 자본 활용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한다. 그러므로 보험을 들 확률은 연령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반면, 보유액의 경우는 일단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1단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보험액은 높아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는 지출이 아닌 보유액을 종속 변수로 보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그동안 축적된 보유액이 많아지기 때문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인적 자본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연령과 고용상태는 보험 보유 확률이나 보유액에 영향을 미쳤는데, 인적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대리변수인 교육수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김경자, 2003; 김순미·양정선, 2004) 유사하게 우리나라 가계 보험행동이 인적 자본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 수준과 보험행동 간의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이 위험관리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저축의 일종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김경자, 2003), 개인의 인적 자본을 고려해 미래 상실분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험 보유를 결정하거나 보험액을 증액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저축 수단의 하나로 여겨왔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상속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결혼상태 및 자녀수에 대한 결과는 상속 동기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상태의 경우 보험 보유 확률과 보험액 모두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원의 수도 중요하지만 부양 가족 유무가 가계 보험행동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넷째, 예상되는 미래 지출에 대한 요구 수준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소득, 부채, 월평균 지출수준 변수들은 재정 설계적 차원에서 가계의 합리적 보험행동에 대한 설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축, 연금, 사회보험 등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소득이 높거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므로 보험 보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이 높거나 월평균 지출수준이 높으면 미래의 상실 부분이나 재정적 요구 수준이 높을 것이므로 보험 보유액을 늘리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저축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은 보험과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었으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저축성 보험에 한정지어 분석한 것이기 때문인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었다.

본 연구는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 보험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2단계에 걸쳐 추정을 함으로서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보험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로부터 연구모형을 도출해냄으로서 보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한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대부분의 보험행동 이론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는 물론이고 재무설계사나 보험관련 실무자들은 보험설계시 이들 주요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험설계시에는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 보험 또는 보장성 보험을 들어 위험에 대비하고 그 차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Garman & Forgue, 2000).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상 저축성 보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가계 특성 및 다른 보험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여 위험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고 저축성 보험 부분을 줄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자료의 한계상 저축성 보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나 기타 세분화된 보험 종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험 종류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 종류의 보험을 설명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험 일반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보험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저축성 보험 보유액은 저량의 개념으로서 현재까지 축적된 수준은 파악이 가능하나 월 보험 불입액이나 보장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가계의 보험 보유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나 위험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득 대비 보험 불입액의 적절성이나 전체 가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속 동기 이론 중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심리적 상속동기 나 이타주의와 같은 변수를 검증하지 못하였고 위험에 대한 인지에 따라라도 보험행동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 상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적 자본 이론 중에서도 교육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기존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교육과 보험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 수요가 인적 자본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령 변수를 인적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령이 인적 자본으로서의 역할과 가족생활주기의 대리변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 변수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소

득원 또는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생활주기 변수를 함께 분석하여 두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가계의 보험행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접수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3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6월 20일

[참 고 문 헌]

-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김순미·양정선(2004). 도시근로자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37-51.
- 김정동(2004). 보험회사의 손익 배분 분석. **보험학회지**, 68, 183-214.
- 김종국·도춘만(2000).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자산운용 방안. **보험학회지**, 55, 187-212.
- 류근식·이경희(2001).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구매 성향분석. **보험학회지**, 58, 99-224.
- 생명보험협회(2004). **생명보험성향조사 2003**.
- 생명보험협회(2001). **생명보험성향조사 2000**.
- 안승철·정영숙·배미경(2002). **신투자와 보험**. 도서출판 신정.
- 양민애(1994). 가계위험관리에 대한 소고. **보험학회지**, 43, 341-363.
- 이원돈(2003). 보험사 사업 진출 및 다각화. **보험학회지**, 65, 15-43.
- 정순희(2003). **소비자재정설계**. 도서출판 신정. 서울.
- Bernheim, B. D.(1991).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5), 899-927.
- Breen, R.(1996). *Regression models censored, sample-selected, or truncated data*. CA: Sage Publications.
- Browne, M. & Kim, K.(1993).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life insurance demand.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0, 616-634.
- Bryant, K.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nett, J. J. & Palmer, B. A.(1984). Examining life insurance ownership through demographic and psychographic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1, 453-467.
- Campbell, R. A.(1980).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 application of the economics of uncertainty. *Journal of*

- Finance*, 35(5), 1155-1172.
- Cragg, J. G. (1971). Some statistical model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with application to the demand for durable goods. *Econometrica*, 39(5), 829-844.
- DeVaney, S. A. & Keaton, E. J.(1994). Determining purchasers of whole life insurance: Using a classification tree. *Journal of the Society of Insurance Research*, 7(2), 33-45.
- Garman, T. E. & Fogue, R. E.(2000). *Personal finance*.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Gandolfi, A. S. & Miners, L.(1996). Gender-based differences in life insurance ownership. *Journal of Risk & Insurance*, 63(4), 683-693.
- Goldsmith, A.(1983). Household life cycle protection: Human capital versus life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0, 33-45.
- Lewis, F. D.(1989). Dependents and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452-467.
- Merton, R.(1975). Theory of f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ous tim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X(4), 695-673.
- Showers, V. E. & Shotick, J. A.(1994).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demand for insurance: A tobit analysi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492-502.
- Vaughan, E. J.(1997). *Risk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Wooldridge, J. M.(2000).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Yaari, M. E.(1965).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Review of Economic Studies*, 32, 137-150.